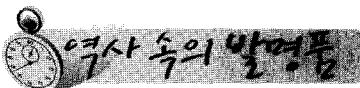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이라 미츠로의 '워크맨'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가 된 워크맨은 실패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처음 워크맨의 본체를 개발한 사람은 일본 소니의 연구개발원 이라 미츠로.

그는 당시 유행하던 테이프 레코더인 프레스맨을 개조하여 크기가 아담하면서 스테레오 음을 내는 테이프 레코더를 만들 작정이었다.

그런데 녹음 기능이 빠진 이상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고 말았다. 당시 테이프 레코더는 거의 인터뷰 녹음용이었기 때문에 녹음 기능이 빠진 것은 '양꼬 없는 꼬맹' 격. 그런데 이 작은 물건이 소니의 명예회장인 이부카의 눈에 띄었다.

이부카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내는 훌륭한 음질에 착안하여 함께 연구 중이던 헤드폰을 플레이어와 연결하여 새로 운 상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처음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놀라워 소니를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모리슨의 '원반'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게 마련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추어 탄생된 발명품이라면 작은 아이디어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프리즈비 원반의 발명가 왈터 프레드릭 모리슨과 사업가 스페드 머린, 리치크너도 유행을 적절히 이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모리슨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목수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비행'이라는 문제에 끌려 있어 날아다니는 것들을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소일했다.

당시 예일 대학 주변을 중심으로 주석냄비를 던져서 날려 보내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었다. 모리슨은 그것을 보며 플라스틱 합성물인 '테나이트'를 조각하여 원반을 만들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이 원반은 주석냄비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날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마틴의 '음성조정 마이크로 컴퓨터'

손발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거나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도 텔레비전, 라디오, 전등 스위치 등을 침대에 누워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마틴이라는 26세의 여성의 발명한 '카탈라보' 덕분이다.

마틴은 '84년에 이것을 완성했다. 이 발명품은 독일, 일본, 프랑스 심지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카탈라보는 목소리를 인식하는 소형 컴퓨터로 특정한 목소리에서 발산되는 음색을 부호로 인식하여 이를 숫자로 재구성한다.

마틴이 음성인식분야에서 최초의 발명가는 아니지만, 그녀는 이 새로운 공학을 개성하여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획기적인 방법으로 소형화시켜 사용범위를 넓혔다.

카탈라보는 비디오 테이프 크기로 아주 작고 가벼우며 사용자의 음성에 1/10초로 반응한다. 이것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다.



차량용 햇빛 가리개

차량에 설치되어 햇빛으로 차량 내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서 차량의 지붕뿐만 아니라 차체의 앞·뒤 유리 및 양측면의 창문을 통해 공급되는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차량의 지붕을 덮는 사각형의 부재에 이어 가장자리에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만든 차량 가리개로서 각각 분리될 수 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잇점을 갖고 있다.

사업성

국내 승용차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가능.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온도 상승 및 여름이 길다는 것도 유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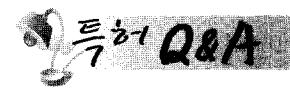
응용분야

자동차 햇빛 가리개 및 보호용 덮개

발명가 : 석영태

출원번호 : 2001026911

등록번호 : 제255962호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이 무엇입니까?

A 특허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심판이란?

① 특허심판이란 특허 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을 들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시 특허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심판에 의해 해결해 드립니다.

②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

나. 특허심판의 단계

특허관련 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 특허심판의 종류

심판은 크게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 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인 '결정계 심판'과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인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라. 특허심판 청구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1항).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 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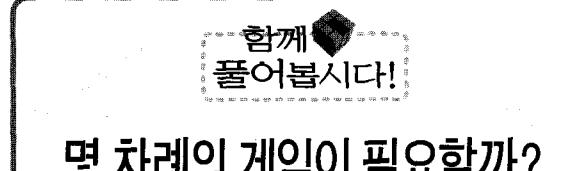
마. 심판비용(법 제165조)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서 정합니다(법 제165조 제1항). 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정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65조 제3항).

바. 특허권의 침해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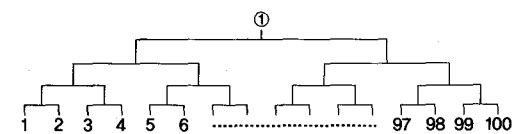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을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중 '전자민원창구'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게임이 필요할까?

아래처럼 1백개의 팀이 출전하는 토너먼트 방식의 야구시합에서 우승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게임이 필요할까?



해답은 다음 호에...

[지난 호 문제]

몇 분이나 걸릴까?

[해답]

59분

한개의 세균이 두개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다. 두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최초의 1분이 절약될 뿐이다. $2=1+1$ 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1시간의 반이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오답을 내고 만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2는 1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간단해진다.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앞

(02)538-2710/2702

e-mail: kwia@inventor.or.kr